

## LYKOI (LK)

라이코이는 야생 집 고양이 무리로부터 발생한 자연 발생 돌연변이다. 이 품종은 털 코트를 “roan”으로 만드는 독특한 컬러패턴을 가진다. 또한 부분적인 무모다. 칼라패턴과 무모의 조합은 라이코이에게 “늑대인간”같은 모습을 준다.

**HEAD 40**– View9, Shape7, Ears6, Eyes4, Nose4, Chin3, Profile3, Muzzle3, Neck 1

**BODY 20** – Limbs 8, Torso 7, Tail 5

**COAT 40** – Color 18, Part hairlessness 18, Length 4

**Category** – Traditional

**Division** – Solid

**Color** – Black

**이종교배** – Black 의 단색패턴을 가진 단모 종 집 고양이

**Natural additions** – 제한된 유전자 풀 때문에 자연적인 성긴 무모를 가지고 태어난 어떠한 고양이라도 그 스탠더드와는 상관없이 브리딩에 이용될 수 있다. 만약 그들이 스탠더드를 만족하면 쇼에 출전도 가능하다.

### HEAD

**Shape** – 몸과 비례가 잘 맞는 둥근 윤곽선의 변형 썸기 꼴 형태. 넓이보다 길이가 길지만 극단적으로 길지는 않다.

**Ears** – 크고 밑부분이 넓으며 끝부분은 뾰족하다. 머리에 높이 위치하며 수직으로 똑바로 선다. 바깥표면은 항상 무모다.

**Eyes** – 살집이 많고 부드럽고 둥근 위스커패드가 있다. 명백한 위스커브레이크가 있다. 중간 길이며 일부 무모 ~ 전체 무모이다.

**Chin** – 잘 발달되어 있으며 코와 수직을 이룬다. 턱은 충실하며 튀어나오거나 썸 들어가지 않으며 둥근 모습이다. 앞 끝부분은 성긴 털 ~ 무모이다.

**Nose** – 만지면 가죽느낌이다. 무모. 부드러운 곡선이며 끝은 약간 둥글게 아래로 향한다.

**Profile** – 눈썹~코잔등까지 명백한 곡선

**Neck** – 중간 길이. 가늘거나 지나치게 근육질이지 않다

**View** – 앞에서 봤을 때 눈, 코, 주둥이 그리고 턱 주변이 무모이거나 성긴 털이 있어서 얼굴이 가면으로 덮여 있는 듯한 모습이다. 성긴 털 혹은 무모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.

### BODY

**Torso** – 세미포린, 가는 골격으로 유연하고 날씬하며 근육질이다. 견실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지나치게 우람하지는 않다. 등은 평평하다.

**Limbs** – 다리와 발은 성긴 털이 있다. 발가락은 길어 보인다. 발과 다리는 무모일 수 도 있다. 다리 길이와 몸은 직사각형을 형성한다. 다리는 중간 길이며 발 크기도 중간이다.

**Tail** – 꼬리는 몸 길이보다 짧고 끝으로 갈수록 좁아진다.

### COAT

**Length** – 짧음~ 중간 길이. 부드러운 촉감

**Color Pattern** – 검은 색. 코트는 다른 품종의 검은 색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유멜라닌의 부재(Eumelanistic)때문이다. 검은 털 가운데 색이 없는 털이 산재해 “roan”효과를 만드는데 이는 고양이가 검은 색보다는 회색에 더 가깝게 보이도록 하며 “늑대 같은” 모습을 만드는데 일조한다. 색소가 없는 털은 전체의 40~60%정도다. 고양이는 “roaning”모습을 보인다.

**Part Hairlessness** – 코트는 부분적으로 무모다. 속 털은 없으며 긴 가드 헤어가 몸을 덮는다. 털의 교체주기에 따라 무모의 범위는 다양할 수 있다. 코트는 “늑대인간” 혹은 “주머니쥐(opossum)”을 닮았다.

**Color** – 검은 색. 단색. 기타 색은 브리딩에 허용되나 쇼 출전은 불허된다. 모든 고양이는 “roan”패턴이 코트에 있다.

**Pattern** – Solid

**Lockets**(흰 반점) – 허용

**Natural additions** – 제한된 유전자 풀 때문에 자연적인 성긴 무모를 가지고 태어난 어떠한 고양이라도 그 스탠더드와는 상관없이 브리딩에 이용될 수 있다. 만약 그들이 스탠더드를 만족하면 쇼에 출전도 가능하다.

## General Description

라이코이는 고대 그리스어로 늑대를 뜻한다. 얼굴은 전설의 “늑대인간”을 연상시킨다. 라이코이는 부분적으로 무모의 고양이로 거의 무모~거의 정상 코트까지 있을 수 있다. 털 코트는 독특한 모습으로, 몸의 대부분이 털로 덮여 있을 때는 주머니쥐의 그릇을 닮았다.

라이코이는 자연적 돌연변이로 지난 수년 동안 간헐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.

이 품종은 2011 년에 서로 다른 자매의 새끼들로부터 시작되었다. 라이코이는 매우 우호적이고 사람에게 관심을 갈구하는 고양이이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처음 보면 매력을 느낄 수 없지만 첫인상에서 벗어나면 그들을 안고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.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은 늑대를 원하기도 한다.

**허용** – 무모의 정도는 털이 자라나는 시기 동안 거의 무모~거의 완전히 털이 덮이는 정도까지 다양하다.

**별점** – 속 털

**WW** – 잘못된 색상. roan 패턴이 없는 경우. 얼굴의 무모 마스크 부재.

**추가** – 수컷은 stud jowl 허용. 암컷은 수컷에 비해 비례적으로 작다. 수컷은 암컷보다 비례적으로 크다. 성품은 공격적이지 않아야 하며 명백한 공격성은 DQ 이다. 무서워하거나 달아나려 하거나 크게 소리치는 것은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.